

중국을 읽는 한 방법으로서의 원테권*

공상철**

〈目 次〉

1. 들어가며
2. 범례로서의 원테권
3. 방법적 지평들
 - 1) 중국의 '진실경험'에 대한 거시적 정치경제학
 - 2) '중국의 경험'을 통해 본 세계자본의 운동역학
 - 3) '중국 특색의 길'에 대한 문명사적 좌표 그리기
4. 방법으로서의 의의와 관련하여
5. 맺으며

1. 들어가며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현재 전 세계의 화두가 되어 있다. 정치경제에서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무역분쟁에서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같이 국제판 뉴스의 꼭지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 뉴스들을 생산하는 '신 냉전'적 환경이나 이를 유포하고 소비하는 담론장의 현실이 어땠든 간에, 이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구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실존적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과서'(textbook)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는지, 이처럼 전 세계가 합심하여 한 나라를 '악마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시선의 높이를 갖고 있지도

* 이 글은 2020년 9월 25일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정기 콜로кви움에서 발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요지를 글로 작성한 것이다.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못한 실정이다.

이런 난감함은 비단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심지어 중국 자신조차 포함하여—처럼 보이지만, 초대륙형 국가의 언저리 반도 땅에서 이 나라를 공부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곤혹이 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현전하는 대상으로서의 중국을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기술(Wissenschaft)이란 어떤 것일까? 혹 그런 것이 있거나 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중국학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일까? 중국 공부의 실효적 방법과 의의를 탐문하는 이 글은 이런 물음에 대해 하나의 경로를 찾아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범례로서의 원테권

이를 위해 본고가 범례로 요청하는 대상은 원테권(溫鐵軍:1951~)이다. 원테권은 중국의 농업경제학자이자 농촌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런민대학(人民大學) 교수를 역임하며 교내 향촌건설센터와 지속가능고등발전연구원,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모색을 계속해 왔다.¹⁾ 동시에 그는 현장운동가이다. 현재 그는 중국의 생태운동, 향촌풀뿌리운동, 공동체기반농업실험 등의 현장을 누비며 중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유의미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²⁾ 런민대학 향촌건설센터가 관여하고 있는 베이징 순이(順義)의 향촌건설실

- 1) 이 모색들을 정리한 책이 『八次危機：中國的眞實經驗1949年~2009年』(北京：東方出版社, 2013), 『告別百年激進』(北京：東方出版社, 2016), 『去依附：中國化解第一次經濟危機的眞實經驗』(北京：東方出版社, 2019)이다. 이 중 첫 번째 책은 『여덟 번의 위기』(김진공 역, 파주: 돌베개, 2016)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고, 두 번째 책의 일부 내용은 그의 강연들을 편집·번역한 『백년의 급진』(김진공 편역, 파주: 돌베개, 2013)에 포함되어 있다.
- 2) 최근 국내 언론사와 가진 한 인터뷰에서 원테권은 이 실험들의 경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 단위 협동조합들을 세웠습니다. 개인과 농장들이 결합하고,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이 함께하죠. (……) 농촌 재건 운동인 공동체기반농업(CSA) 운동 아래 5개 부문 운동도 벌여 나갑니다. 도시 중산층의 잉여 자본이 농촌으로 가도록 하면서 농촌과 도시 사람들이 생산·소비뿐 아니라 문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창작 문화를 키우는 운동을 합니다. (……) 무엇이 인류를 위해 의미로운지 생각하고 새로운 생태시스템을 갖도록 하는 거죠.

협기지가 ‘梁漱溟鄉村建設中心’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실험의 성격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단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동시에 원테권의 일련의 작업을 학술사적으로 평가하고 자리매김 하기 위한 유효한 근거이기도 하다.³⁾

여기서 본고가 원테권(혹은 원테권 그룹)⁴⁾을 방법적 범례로 요청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현대 중국 70여 년의 역사를 국가운영과 거시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준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이러한 틀을 통해 냉전체제에서부터 최근의 ‘신 냉전’적 현실에 이르기까지 세계체제의 자기전개 과정과 운동역학을 간취(看取)해 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며,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존의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 프레임과는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프레임—중국문명의 유물론적 토대에 기초한—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원테권의 문제설정에 대한 미시적 전문(專論)이 아니라 그의 입론을 통해 중국 공부에 관한 하나의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 정도가 되는 셈이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요청 근거의 윤곽을 간략히 그려보면서 그의 입론이 갖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탐문해 보고자 한다.

저와 우리 동료들의 새 이데올로기예요. 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난 사상입니다. 생태문명 속에서 순리대로 속도를 늦추어 사는 생태마을, 슬로 푸드, 슬로 라이프를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자원 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계 방식이죠. 이 방향이 새로운 철학을 위한 목표이고 새로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 가는 길입니다.”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⑥원테권’, 『경향신문』 2020년 6월 11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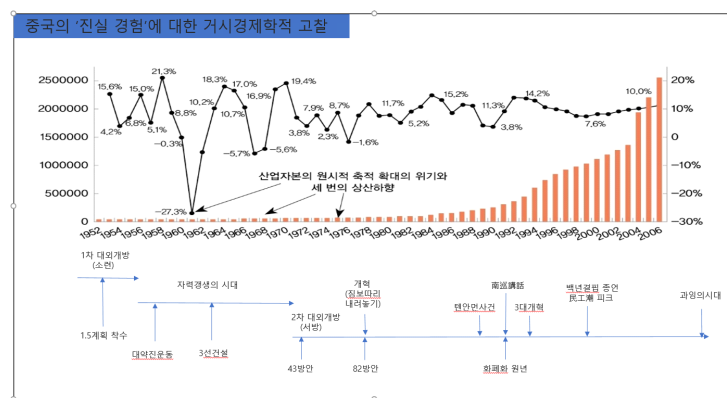
<http://www.hsw.org.cn/wzxx/llyd/jj/2015-09-14/34012.html>

- 3) 이런 차원에서 량수밍의 『東西文化及其哲學』(1919), 『鄉村建設理論』(1936) 같은 저작과 1950년대 농촌정책에 관한 그의 입장이 마오쩌둥의 입장과 충돌하는 지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4) 여기서 ‘원테권 그룹’이라 함은 원테권을 둘러싼 일군의 연구집단(주로 런민대학 소속 연구소들과 관련된)을 가리킨다. 이 집단을 ‘학파’(school)라 부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원테권의 저작이나 강연 내용들은 대개 이 그룹의 집단지성과 공동학습, 공동필드워크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 그룹의 좌장을 맡고 있는 셈이다.

3. 방법적 지평들

1) 중국의 '진실 경험'에 대한 거시적 정치경제학

원테권의 저작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현대 중국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천착하고 대면하려는 실질주의자의 정신이다. 그는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기존의 역사학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과정에서 시시각각 직면한 실존적 사태에 착목한다. 이 시선은 의외로 래디컬 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역사적 상식들을 뒤흔들거나 심지어 무너뜨리기도 한다. 입론 도처에는 논쟁적 요소가 가득하지만, 그 논거가 구체적 실증으로 제시되다 보니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수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중국 인민들이 겪은 '진실한 경험'에 의하면 반우파투쟁은 실제로는 반좌파운동이 되고, 프롤레타리아인 농민은 수탈의 대상이 되며 이렇게 이룩한 사회주의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로 부르기가 어렵게 되는 식이다.⁵⁾ 이 낯선 사관(史觀)은 거시적 정치경제학의 형태로 전개되는데, 이것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70여 년 역사는 '두 번의 대외개방'과 '여덟 번의 위기', 그리고 '중속'의 경험과 '탈중속'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5) 원테권, 김진공 역, 『백년의 급진』 37~9쪽, 파주: 돌베개, 2013.

위 도표에서 우리는 ‘중국의 경험’의 중요한 결절점(結節點)을 구성하면서 원테켄 식 사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몇 개의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들에는 다양한 해석의 지층들이 단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한 겹씩 들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근대국가의 기틀 마련에 총력을 경주하는 건국 초기 1956~58년이라는 시점이다. 건국 초 추진된 ‘국가자본주의’ 기획과 그것이 만들어낸 일련의 후과—「농업합작화에 관한 문제」(55.7), 「10대 관계론」(56.4),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하여」(57.2) 같은 마오쩌둥의 중요 연설과 쌍백방침(1956), 반우파투쟁(1957), 대약진운동(1958) 등등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해석이 존재하지만,⁶⁾ 여기에 원테켄의 입론을 밀받침해 보면 국가 기틀 마련을 둘러싼 당시의 문제점과 실존적 고민들이 한층 현실감과 불륨감을 입게 된다.

이를테면 ‘개국대전’(開國大典) 당시 공산당이 마주한 현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와 6억 여 헐벗은 인구, 텅 빈 국고였다는 점, 그리하여 국가 기틀 마련을 위해 소련으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결과 54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이것이 이 신생 공화국의 ‘첫 번째 대외개방’이었다는 점, 이 차관은 ‘제1차 5개년 계획’(1953~57)의 밑천과 동력이 되었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 이는 ‘스탈린 모델’의 전면적 이식으로 인한 대외 ‘종속’ 역사의 출발이 된다는 점, 1956년부터 후르쇼프 체제가 중국에 투입된 자본을 철수하면서 잠복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국내적으로 1956~58년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 이로부터 이른바 ‘57 체제’⁷⁾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농이원구조’, ‘정부기업주의’, ‘거국동원체제’ 등 이후 ‘중국의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특징들이 정착된다는 점,⁸⁾ 이리하여 외국으로부터 차관의 형태로 산업 설비와 기술을 들여와 → 공업자본을 확충하고 → 농촌의 합작사를 통해 잉여를 뽑아내어 → 이를 값아 가는 모종의 알고리즘이 ‘경로의

6)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제3부, 서울: 이산, 2007.

7) 錢理群, 「中國特色的“五七體制”」, <http://www.aisixiang.com/data/19511.html>

8) 원테켄, 김진공 역, 『여덟 번의 위기』 103쪽, 파주: 들베개, 2016.

존성'(path dependency)으로 내면화된다는 점⁹⁾ 등등이 그렇다.

원테쿰이 이 시기에 착목하는 이유는 이 알고리즘의 마지막 고리인 농촌이 국민 경제의 하치장과 저수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국이라는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금세기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삼농'(三農) 문제의 연원이 바로 이 시점에 잠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이 연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최근 이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¹⁰⁾

둘째, 닉슨의 베이징 방문으로부터 '죽의 장막'이 열리는 1972~74년이라는 시점이다. 개혁개방을 설계하고 창도한 인물이 덩샤오핑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만, 이 시점에 주목할 때 이런 상식은 위태로워진다. 원테쿰은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발표된 '43방안'에서 사실상 '두 번째 대외개방'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첫 번째 대외개방'과 다른 점이라면 문을 여는 대상이 소련에서 서방세계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때는 문화대혁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던 시기로, 린뱌오사건(林彪事件)(1971) 이후 사인방(四人幫)이 막 등장하던 무렵이다. 이때 서방으로부터 도입한 43억 달러 규모의 차관(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1972년 중국과 수교를 단행한 일본이 부담)에서 개혁개방의 엔진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덩샤오핑 식의 개혁개방은 '82방안'의 형태로 차관의 규모를 확대(실제로는 128억 달러 규모)하고 '3개의 짐 보따리'(인민공사, 국유/집체기업, 지방정부)를 내려놓으면서 이데올로기화 작업—'實事求是', '發展是硬道理', '先富論', '傾斜理論' 등등의 방식으로—을 병행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오쩌둥의 시대와 덩샤오핑의 시대가 단절적이냐 연속적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다. 냉전체제의 두 축을 횡단하는 이 모험은 중국 현대사의 기본 프레임을 재검토하고 재조정해 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핵개발을 레버리지로 삼아 냉전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은, 작금의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기본 프레임—소련 붕괴 이후 선군정치로부터 착수된 김정일 체제의 핵 개발에서

9) 원테쿰, 위의 책 101쪽.

10) 2019년에 출간된 저작 『去依附：中國化解第一次經濟危機的真實經驗』은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부터 김정은 체제의 대외 개방 구상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기초로 삼는—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참조체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선언에서부터 장쩌민에 의해 3대 개혁이 착수되는 1992~94년이라는 시점이다. 원테권이 보기에 1991년 소련 붕괴는 이 시점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는 소련 붕괴의 원인을 서구사회가 공언하는 바대로 이념의 승리로 보지 않고 “구소련을 대표로 하는 전통적인 산업 자본 제국주의가 미국을 대표로 하는 현재적인 금융자본 제국주의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본다.¹¹⁾ 이것이 일종의 반면교사로 작용해 중국으로 하여금 화폐화를 미룰 경우 맞이하게 될 운명을 미리 학습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집체경제의 산물인 증표제를 폐지하고 ‘화폐화 원년’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새로 출범한 장쩌민 체제는 덩샤오핑의 개혁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1994년 환율, 국영기업, 지방정부 분야에서 3대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이 결과 국영기업에 종사하던 4,50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사회주의 집체시스템의 나머지 한 축인 단웨이(單位)체제마저 붕괴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을 나누는 분세제가 시행되는데, 이로 인해 반 토막이 난 지방정부 재정의 결손분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부과된다. 전국의 농촌에서 처음으로 집단시위가 터져 나왔던 것도 이즈음이었다. 또한 이중환율제로 운영되던 환율체계는 단일환율로 조정되면서 33% 규모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되는데, 그 부담 역시 전국의 인민들이 짊어졌다.¹²⁾ 그래서 중국 인민들에게 1994년은 ‘고난의 한 해’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 개혁은 사실상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유치하게 되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

넷째, ‘100년의 결핍’을 뒤로 하고 ‘과잉의 시대’가 본격화되는 2010년이라는 시점이다. 이 해는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DP 규모 세계 2위의 경제체로 발돋움하던 시기이다. ‘중국 특색의 길’을 뒤로 하고 ‘포스트 중국적 특색’¹³⁾을 고민해야

11) 원테권, 『백년의 급진』 110~11쪽.

12) 원테권, 위의 책 93쪽.

13) 조슈아 쿠퍼 레이모, 「베이징 컨센서스를 제기한 이유」, 김진공·류준필 역, 『베이징 컨센서스』 271쪽, 서울: 소명출판, 2016.

하던 이 시기는 이른바 ‘뉴 노멀 상태’(新常態)—구조적으로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과 동력을 새로이 고민해야 하는 —로 진입하기 직전의 시간대이다. 이는 포스트 후진타오 체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진 권력투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면서 동시에 새로 출범하게 될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 체제 출범과 더불어 착수되어, 이내 세계체제 중심국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문제적 아젠다의 성격과 본질 문제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곧이어 도래하게 될 ‘신 냉전’ 질서의 실질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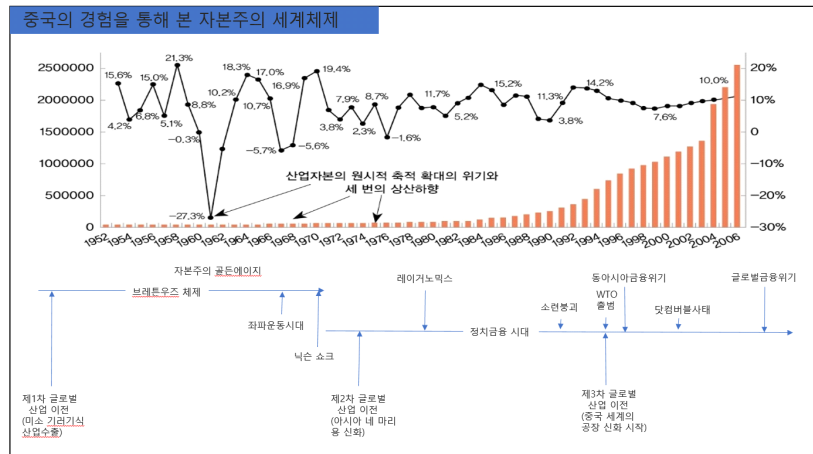
2) ‘중국의 경험’을 통해 본 세계자본의 운동역학

이와 같은 독특한 정치경제학을 전개해나가면서 원테권은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체제의 자기전개 과정을 배경으로 가설한다.¹⁴⁾ 이 작업은 명시적 형태로 수행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험’을 운양하고 주조하는 생태계 내지 틀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그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유물론적 역사학’을 착상시키는 일종의 좌표축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이를 복원해보면 중국의 눈으로 2차 대전 이후 세계자본이 드러내는 자기운동의 질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선 하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신생 국가의 건설과정을 외부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좌 하나를 개간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원테권에 의하면, 중국은 개국의 첫걸음부터 냉전의 질서에 포획된다. 애당초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 건설에 몰두하려던 계획은 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동적인 스탠스로 사회주의 카르텔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이것이 1950년 체결된 중소우호조약의 실체였고, 이는 냉전 질서

14) 원테권은 2차 대전 이후의 경제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중국과 주요하게 결절(結節)되는 부분을 위주로 산발적으로 거론한다. 참고로 그는 1980년대 정부 파견 자격으로 미국의 여러 대학 사회연구소와 세계은행에서 필드워크를 수행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 중심부의 작동원리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의 첫 번째 충돌 현장으로 중국을 내몬다. 사실상 대리전의 성격이 강했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이런 맥락—항미원조(抗米援朝) 운동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는 곧 한국전쟁의 성격 문제와도 직결된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은 '1.5계획'을 가동할 수 있는 밑천과 토대를 비로소 확보하게 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는 냉전의 두 당사국들에 의해 이루어진 글로벌 차원의 '첫 번째 산업 이전'의 한 양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카르텔은 '두 개의 공장'을 복원—유럽의 마샬플랜과 일본의 전후 복구—하면서 산업 수출을 본격화 한다.¹⁵⁾ 이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BWS)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이 질서에 힘입어 자본주의 진영은 195~60년대 골든 에이지를 구가한다. 이 유례없는 호황을 통해 자본주의 진영은 '과잉축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결과 수많은 모순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1960년대 중후반 세계적인 신좌파운동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¹⁶⁾ 이리하여 자본주의 진영 내부에서 글로벌 차원의 '두 번째 산업 이

15) 필립 암스트롱 외,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120~5쪽, 서울: 동아출판사, 1993.
 16) 필립 암스트롱 외, 위의 책 286~8쪽.

전'이 일어나는데, 이로부터 냉전체제의 최전방에 위치한 지역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신화가 탄생한다.¹⁷⁾ 그리고 얼마 뒤 덩샤오핑 식 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향진기업(鄉鎮企業)의 희생 어린 약진에 힘입어 중국 역시 이 신흥공업국들(NICs)의 대열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닉슨의 중국 방문 시점과 1974년 중국이 도입한 43억 달러의 정채이다. 건국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던 대중국 봉쇄를 해제한다는 선언이 나온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 내에서 '닉슨 쇼크'—미국이 달러 태환 중지를 선언함으로 시작된—가 발생하는 1971년 8월 즈음이다. 이는 닉슨의 중국 방문이 사회주의 카르텔 내부의 균열을 의도한 것이라는 저간의 프레임을 넘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도입한 43억 달러의 정채 역시 호황의 종결로 갈 곳을 못 찾고 있던 자본주의 중심부의 잉여자본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¹⁸⁾ 마오쩌둥이 주도한 '두 번째 대외개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지평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한편 '닉슨 쇼크'로 사실상 종말을 고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단계를 모색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금 본위제와 결별한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정치적 힘을 유일한 신용 근거로 삼음으로써 본격적인 '정치금융'의 시대에 돌입한다. 이 새로운 게임규칙에 의해 스타워즈(MD)라는 새로운 게임장이 열리게 되고 이 경쟁에서 구상무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던 사회주의 카르텔(COMECON)은 결국 붕괴를 맞이한다. 이 결과 자본주의 진영에 의해 '역사의 종말'(프랜시스 후쿠야마)이 선포되고, 이로부터 1995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산물인 GATT를 대신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의 본격적인 출현을 알리게 된다.

이 무렵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WTO 체제에 정식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¹⁹⁾ (2001년 정식 가입) 이것이 이즈음 단행되는 글로벌 차원의 '세 번째 산업 이전'과 연동된다.²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새로운 재편에 의해 세계의 공장은 1994년의

17) 이 신화의 탄생 과정에 관해서는 공상철, 『폭스콘은 어떤 장소인가』(『중국어문논역총간』 46, 중국어문논역학회, 2020.1)을 참조 바람.

18) 필립 암스트롱 외, 위의 책 416~9쪽.

19) 애덤 투즈, 우진하 역, 『붕괴』 63~5쪽, 파주: 아카넷, 2020.

20) 원테켄, 김진공 역, 『여덟 차례 위기』 336~7쪽, 파주: 들베개, 2016.

개혁으로 외향형 경제체제의 조건을 구비하게 된 중국으로 급속히 이동하게 된 것이다. 1994년의 개혁으로 위안화 시스템이 달러 시스템에 연동(peg)된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새로운 종속의 굴레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중국은 자국의 사정과 무관하게 외부로부터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IMF 사태'로 기억되는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9년의 월스트리트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더욱이 2008~9년의 '두 번째 외래형 위기'는 '세계의 공장'의 주역 중국의 노동자 2000만 명을 일시에 실업자로 만들어버림으로써²¹⁾ 글로벌 금융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실감하게 만든다.

한편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스타워즈에 투입된 IT 기술이 민수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리콘 벨리 신화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투자되었던 글로벌 금융자본이 일시에 IT 산업으로 회수되면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²²⁾ 그러나 2001년 닷컴버블 사태로 IT 산업에 투자된 자본의 버블이 폭발함에 따라 여기에 투입되었던 금융자본이 세계의 공장으로 대거 몰려온다. 이 해 중국은 해외직접투자(FDI) 1위국이 되는데, 이때 몰려온 자본에 힘입어 중국은 본격적인 '과잉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2008~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왕성하게 가동되던 세계의 공장이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기는 중국으로 하여금 금융의 자본화 단계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²³⁾

이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도맡으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부 엔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국의 위상학적 질서에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세계체제 질서 내에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국제금융 카르텔의 집중적 견제와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험난한 운명이기도

21) 허쉐핑, 김도경 역,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13~6쪽, 파주: 들베개, 2017.

22) 温铁军·邱建生·张俊娜, 「理性看待全球危机, 自觉转向生态文明」

<http://www.hswh.org.cn/wzzx/llyd/ij/2015-09-14/34012.html>

23) 원테켄, 「자본주의 금융화 단계의 객관적 변화와 그것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2016년 12월 29일 베이징 량수밍향촌건설센터 순이(順義) 기지에서에서의 강연록)

하다. 이렇게 보면 2017년 1월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싱(中興)과 화웨이(華爲)를 겨냥하며 시작된 중미 간의 무역분쟁은 단순한 무역 차원의 분쟁이 아닌 것이 된다. 이는 자본의 금융화가 심화될 대로 심화된, 그래서 주기적으로 버블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현행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새로운 게임장과 게임규칙—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주로 4차 산업과 관련된—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의 서막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지구촌에 가져온 일련의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이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해주고 있다. 대략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신 냉전’ 시대의 도래라고 이야기하는 최근 사태의 열개인 썬인데, 이로부터 이제 이런 물음이 남게 된다. ‘포스트 중국 특색의 길’은 어디로 나 있는가?

3) ‘중국 특색의 길’에 대한 문명사적 좌표 그리기

원테권의 최근 글과 강연들을 보다 보면 그간 정부의 주류 이데올로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오던 입장에 미묘한 중심 이동 같은 것이 감지된다.²⁴⁾ 이런 동세는 단극 체제로부터의 ‘탈중속’²⁵⁾이라는 문제의식을 심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좀 더 분명히 감지되는데, 이는 그들의 공부 커리큘럼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이들의 공부 커리큘럼은 크게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간의 연구가 유물론적 정치경제학이라는 프레임으로 세계체제 중심부의 운동 양상을 면밀히 스캔하면서 이를 중국의 현실로 되감아 오는 식이었다면, 최근의 공부는 이 정치경제학을 떠받치는 토대, 그러니까 인문지리, 역사학, 문화론, 문명론 등등의 영역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해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중국의 중국

24) 그간 원테권은 중국 지식인들을 분류하는 편의적 기준인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라는 구도와 무관한 비주류의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학술적 입장과 가치지향을 기준으로 구태여 분류해본다면 아무래도 신좌파 쪽에 가깝다.

25) 원테권의 입론을 검토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가 새로이 규정하거나 재영토화하는 개념들이다. 이를 테면 ‘去依附’(탈중속)이란 용어도 그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개념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함께 서구적 ‘일반이론’과 구분되는 ‘개념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삼투되어 있는 듯하다.

의 문화시스템을 설명할 때 동원하곤 하는 ‘문화환원주의’나 ‘정체론’(holistic)적 사고구조(林毓生) 같은 것이 여기서도 계통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커리큘럼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골자를 간추려보면 초대륙형 국가 형질에 관한 역사유물론적 해석, 소농경제에 기반한 동방적 생산양식 탐구, 동방식 정치경제학의 모색 정도로 응축이 가능하다.²⁶⁾ 이들 주제는 중국이 서 있는 현재적 입장—세계 체제의 단극국가에 단단히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탈종속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는—에서 철저히 전략적인 방식으로 해석되고 전유된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²⁷⁾

먼저, 이들은 초대륙형 국가라는 중국의 유물론적 조건에 주목한다. 최근 들어 부쩍 기후학, 인문지리학, 역사지리학 등등의 학문분야를 넘나드는 것은 이 때문인데, 여기에는 베스트팔렌(Westfalen) 체제 하에서 형성된 근대 유럽 식 민족국가(nation-state)의 틀로는 중국과 같은 초대륙형 국가의 형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²⁸⁾ 이로부터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초대륙형 국가의 전략적 중심(縱深, depth)이다. 이 중심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기능을 했으며, ‘지금, 여기’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와 효용을 갖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매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자리매김하는 문명사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²⁹⁾ 이로부터 가시화된 ‘신 냉전’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한 전략적 무게중심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두 번째 주제, 즉 소농경제에 기반한 동방적 생산양식 탐구는 일찍이 맑스에

26) 이 주제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상철, 「원테켄의 중국 생태문명 담론에 관한 고찰」(『중국문학』 10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9.11)을 참조 바람.

27) 이하 내용은 溫鐵軍, 「金融全球化成本轉嫁與中國生態文明戰略」(강연)에 근거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4NGfdGN4g_U

28) 여기서 ‘암묵적’이라 함은 이런 생각의 틀이 중국 지식인들 내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경험’을 논하는 자리에서 황평(黃平) 역시 이런 생각을 밝힌 바 있고, 간양(甘陽)이 ‘문명-국가(civilization-state)’라는 개념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9) 원테켄, 「중국의 ‘일대일로’는 평화발전 이념인가」, 백지운 번역, 『창작과비평』 169호, 좌주: 창작과비평사, 2015년 가을호.

의해 규정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엄두에 둔 작업처럼 읽힌다. 왜냐하면 논의의 방향이 맑스의 이 규정을 물구나무 세우면서 대항논리를 제시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르면 중국 문명은 애초부터가 다원적이다. 다원적 전체로서의 중국 문명은 자신들만의 코스몰로지(cosmology)를 형성해 왔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바탕을 둔 이 코스몰로지는 근대 문명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논리가 현재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생태문명건설’, ‘문명 간의 대화’, ‘인류운명공동체’ 등등의 문명사적 비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묘한 중심의 이동 운운한 것은 이런 대목들을 두고 한 말이다.

세 번째 주제 역시 위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동방식 소농경제 토대는 거기에 걸 맞는 사회문화자본을 축적해 왔는데, 이것이 두 가지 사회문화 메커니즘—즉 집단문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심각한 외부성 문제를 내부화해서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대가를 따지지 않는 노동력을 자본을 대신해 투입’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비교 우위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³⁰⁾ 중국 특색의 ‘비(非) 전형적 발전주의’는 이 메커니즘과 비교 우위 덕택에 ‘아슬아슬한 도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원테권의 생각이다.³¹⁾ 그는 이 사회문화자본의 ‘탁월한 지속 가능성’을 ‘농가이성’(農戶理性), ‘향촌공동체이성’(村社理性), ‘동방적 정의(正義)’ 등으로 개념화하면서 그 내포와 외연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촌운동의 실천 현장들을 동분서주하고 있다.³²⁾ 이는 학계 쪽의 ‘문명 주권’ 찾기, ‘개념 주권’ 찾기 같은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한층 공명을 키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에 즉하여 아시아 사회가 보여준 공동체적 합리성은 이 작업에 현실적 토대를 한층 복돋워주고 있는 듯하다.³³⁾

30) 원테권, 『백년의 급진』 12~4쪽.

31) 溫鐵軍·邱建生·張俊娜, 「理性看待全球危機, 自覺轉向生態文明」, 『福建農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年 第4期.

32) 溫鐵軍, 「金融全球化成本轉嫁與中國生態文明戰略」

33) 이 문제와 관련해 원테권은 이렇게 말한다. “서구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는 각자가 마스크를 벗을 권리가 있다고 하죠.……개인 중심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죠. 하지만 동양 토착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떤 종류의 자유는 포기하려 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요.……두 사회는 서로 다른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

4. 방법으로서의 의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원테권의 전체 입론에 대해 나름대로의 윤곽을 그려보았다. 이것에 의하면 원테권이 설정하는 문제의식의 틀이 보여주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정치경제학에서 문화문명론에 이르기까지, 기후학에서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의 경계들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에 관한 국내 학계의 시선은 의외로 서늘하다. 여기에는 모종의 불편함 같은 것도 적잖이 배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불편함은 대개 초대륙형 국가 중국의 광폭 행보에 대해 반도국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정서에 기초하고 있다.³⁴⁾ 여기에는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단국국가의 하위체제로 단단히 종속되어 있는, 그래서 서구 세계가 만든 대 중국 프레임 외에 독자적인 인식들을 장착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실은 곧잘 원테권의 입론을 두고 생경함—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이론’과 거리가 멀다는 의미에서의—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아마 원테권이라면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언어로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역으로 서구의 ‘일반이론’을 빌려와 중국이 겪은 특수한 경험에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중국의 경험’은 서구가 만든 ‘일반이론’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원테권의 입론은 세계 담론시장에서 이미 유행이 지난 종속이론의 중국적 버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³⁵⁾ 이에 대

인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요.”(「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⑥원테권」)

34) 원테권의 강연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그의 입론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소비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신 냉전’ 국면에서 그의 입론은 이 국면에 대한 인식들과 대응논리, 여기에 심리적 안전망 같은 것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에 대한 한국 내 독자들의 불편함 역시 이런 측면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서방세계가 만든 대 중국 프레임 외에 독자적인 프레임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는 능히 이해할 만하다.

35) 참고로 원테권은 자신의 문제설정에 사미르 아민(Samir Amin)이 중요한 참조체제로 작용

해 원테권이라면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제3세계의 일원으로 출발해, 아직도 당신들의 땅에서 냉전체제가 엄연한 상황에서 당신들은 왜 제1세계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고 말이다.

이 지적과 반론들은 중국을 인식하는 틀의 중요한 열개를 구성한다. 필자가 보기에 원테권이라는 문제의식의 타래는 이 틀의 넓이와 높이, 두께와 볼륨을 자아내는 데 유의미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문제'의 내핵으로 직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그의 발언대로 '또 다른 세계'를 찾아가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은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는 슬로건이 익숙하지 않아서 향촌건설이라는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대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another world is here)고 말합니다."³⁶⁾

5. 맺으며

코로나 이후의 세계 모습에 대한 전망은 어느덧 학계의 모든 이슈를 잠식하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다. 이 사태의 진원지가 우리 공부의 대상이라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보다 각별한 무게로 다가온다. 지난 일 여 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찬찬히 복기해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버전의 '데카메론'을 쓰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테권의 인터뷰 한 대목을 부기해둔다.

바이러스는 현대화에 대한 일종의 비평문을 작성했다고 봅니다. 현대화가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 대지 밖으로 던졌어요. 인류는 자연과 분리되기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6) 溫鐵軍, 『告別百年激進』12쪽, 北京:東方出版社, 2016.

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자연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라고요. 인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의 일부입니다. 바이러스의 도전과 마주한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호통칩니다. 가르침을 주려 하죠. 우리는 이 수업을 잘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질주해오던 관성을 멈춰야죠. 그런 다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요. 우리의 오랜 문화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속에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다.³⁷⁾

〈參考文獻〉

- 溫鐵軍, 『八次危機: 中國的真實經驗1949年~2009年』, 北京: 東方出版社, 2013.
- 溫鐵軍, 『告別百年激進』, 北京: 東方出版社, 2016.
- 溫鐵軍·董筱丹, 『去依附: 中國化解第一次經濟危機的真實經驗』, 北京: 東方出版社, 2019.
- 원테권, 김진공 편역,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 원테권, 김진공 역, 『여덟 번의 위기』, 파주: 돌베개, 2016.
- 조슈아 쿠퍼 레이모 외, 김진공류준필 역, 『베이징 컨센서스』 271쪽, 서울: 소명출판, 2016.
-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서울: 이산, 2007.
- 허쉐핑, 김도경 역,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파주: 돌베개, 2017.
- 필립 암스트롱 외,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3.
- 애덤 투즈, 우진하 역, 『붕괴』, 파주: 아카넷, 2020.
- 溫鐵軍·邱建生·張俊娜, 「理性看待全球危機 自覺轉向生態文明」, 『福建農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年 第4期.
<http://www.hsw.org.cn/wzcx/llyd/jj/2015-09-14/34012.html>
- 溫鐵軍, 「金融全球化成本轉嫁與中國生態文明戰略」(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4NGfdGN4g_U
- 錢理群, 「中國特色的“五七體制”」, <http://www.aisixiang.com/data/19511.html>
- 원테권, 백지운 역, 「중국의 ‘일대일로’는 평화발전 이념인가」, 『창작과비평』 169호, 파주: 창작과비평사, 2015년 가을호.
- 원테권, 「자본주의 금융화 단계의 객관적 변화와 그것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2016년

37)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⑥원테권」

- 12월 29일 베이징 순이(順義) 량수밍향촌건설센터에서의 강연록.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⑥원테권」, 『경향신문』 2020년 6월 11일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0600025
공상철, 「폭스콘은 어떤 장소인가」, 『중국어문논역총간』 46, 중국어문논역학회, 2020.1.
공상철, 「원테권의 중국 생태문명 담론에 관한 고찰」, 『중국문학』 101, 한국중국어문학회, 2019.11.

〈Abstract〉

Wen Tie-jun as a Way to Read Chinese

Kong, Sang-Chul

Currently, China under the rule of Xi Jinping becomes a topic of conversation in the whole world. However, the world does not have a 'textbook' that could clearly explain the existential situation of this country yet. Moreover, it does not have the height of perspective that could evaluate if it would be right for the whole world to 'demonize' China like this. Then, what is the 'rational technique' that could fully 'understand' and 'explain' China as a subject of studies? Is there something like that in reality? This thesis that inquires the effective methods to study China, starts from a critical mind aiming to find a pathway for this question.

For this, this thesis requests Wen Tie-jun as a model example. He is a Chinese agricultural economist and also an expert in rural problems. Moreover, he is a field activist. Going around the fields of ecological movement, rural community reconstruction movement, and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he is currently conducting various experiments by thinking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Chinese society.

There are three kinds of grounds for requesting Wen Tie-jun as a method. First, he presents the frame of macroscopic political economy that could prospect the 'experiences of China' for about 70 years. Seco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read the dynamics of the world history from the cold war system to the 'new cold war' order. Third, he

presents the outline of a new fram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nation-state frame, regarding the future direction of China.

Key words: Wen Tie-jun, Sinology, Methodology, Chinese Problem, Three Agriculture, Rural Community Reconstruction Movement

이 논문은 2020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